

# 영상으로 만나는 명품 공연 지역 관객의 문화 루틴 되다

‘ACC 수요극장’ 12편 무료 상영  
매월 첫째주 수요일 극장3  
‘라파치니의…’·‘백조의 호수’ 등



‘하나를 위한 노래’  
〈부산콘서트홀 제공〉



뮤지컬 ‘라파치니의 정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라파치니의 정원’,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백조의 호수’, ‘하나를 위한 노래’…

지역에서 해외나 수도권의 화제작을 직접 만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동과 시간의 제약은 공연 관람의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ACC 수요극장’은 이런 아쉬움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이다. 멀리 떠나지 않고도 우수 공연 실황을 대형 스크린으로 감상할 수 있어 어느덧 지역 관객들의 문화적 루틴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도 ACC 수요극장이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7시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관객을 맞는다. 이미 상영된 1월 창극 ‘베니스의 상인들’과 2월 ‘빈 페스티벌’을 포함해 연말까지 총 12편의 공연이 차례로 스크린에 오를 예정이다.

먼저 3월 4일에는 스튜디오 선데이의 창작 뮤지컬 ‘라파치니의 정원’을 만날 수 있다. 2024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선정작으로, 미국 소설가 나나니엘 호손의 단편 ‘라파치니의 떨’에 판타지

적 상상력을 더해 새롭게 풀어냈다.

배경은 18세기 이탈리아 파두아. 식물의 둑을 연구하는 과학자 라파치니와 그의 딸 베아트리체, 그리고 예술가 지노 바니의 만남을 통해 아름다움과 비극, 진실과 유행이 교차하는 서사를 그린다. 둑이 깃든 정원에 갇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온 베아트리체는 지노바니를 통해 처음으로 타인의 온기를 느낀다. 그러나 정원 밖으로 나선 순간 사람들은 그녀를 미녀로 몰아세운다. 인물들의 선택과 갈등을 따라가며 전개되는 서정적 음악과 극적인 서사가 작품의 몰입도를 더한다.

4월 1일에는 국립극단의 연극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가 이어진다. 청소년 관객을 겨냥한 이번 작품은 발랄한 락산느와 그녀를 둘러싼 세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꽃과 나무가 가득한 일상의 공간과 전쟁터를 대비시키는 무대 구성은 극적 긴장감을 더하고, 서총식 연출의 리듬감 있는 전개와 김대형 작가의 경쾌한 대사가 작품의 힘력을 이끈다.

네 인물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마주하는 과정을 통해 관객은 관계와 진심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된다. 이날은 음성해설과 자막이 포함된 ‘접근성 버전’(오후 5시)과 일반 상영(오후 7시)으로 나뉘어 진행돼 보다 폭넓은 관객이 공연을 즐길 수 있



국내외 우수 공연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ACC 수요극장’이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3에서 펼쳐진다. 빈 국립오페라극장 ‘백조의 호수’의 한 장면.  
〈케빈엔컴퍼니 제공〉

도록 했다.

5월 6일에는 빈 국립오페라극장의 발레 ‘백조의 호수’가 상연된다. 클래식 발레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20세기 최고의 발레리노이자 안무가 루돌프 누리에프가 1964년 빈 국립오페라극장을 위해 안무한 버전이다. 지그프리트 왕자의 내면에 초점을 맞춰 남성 무용수의 존재감을 한층 부각한 점이 특징이다. 상연되는 영상은 조연 50주년을 기념해 2014년 선보인 공연 실황이다.

클래식 팬이라면 6월 10일 상연되는 ‘하나를 위한 노래’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해 부산콘서트홀 개관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공연 실황으로 베트벤페스티벌에서 선보인 공연 실황이다.

정명훈이 지휘하고 아시아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았으며, 사이카 쇼지, 지안왕, 황수미 등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했다. 대규모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빛내는 장엄한 울림을 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다.

‘ACC 수요극장’ 관객들이 특히 선호하는 장르

인 오페라 무대는 7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다. 7월 1일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일 트로바토레’를 시작으로 8월 5일 아레나 디 베로나의 ‘토스카’, 9월 2일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나비부인’, 10월 7일 빈 국립오페라의 ‘투란도트’가 차례로 상연된다.

11월 4일에는 광돌이클럽의 연극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힙스틱’을 선보인다. 재수생 은빈을 중심으로 우아스러운 할미니와 사별 이후 자식에게 집착하는 엄마, 편애를 독차지하면서도 무연가 수상한 오빠까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배우들이 배역을 끊임없이 교차하는 구성 속에서 가족과 정체성, 퀴어 이슈를 유포하면서도 밀도 있게 풀어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2일에는 ‘하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가 예정돼 있다. 2022년 프랑스 파리 필하모니에서 열린 공연 실황으로, 하사이시 조가 직접 지휘하고 스트라스부르 필하모니 관현악단이 함께한 무대를 담았다.

전석 무료, ACC 누리집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섬진강변 도깨비마을서 ‘이색 북 콘서트’

21일 김성범 등 그림책 ‘뭐 어때!…’

곡성 섬진강변의 도깨비마을에서 이색적인 북 콘서트가 열린다. 오는 21일 오후 3시.

이번 콘서트는 도깨비마을의 촌장인 아동문학가 김성범의 그림책 ‘뭐 어때! 멋지잖아’를 중심으로 꾸며지는데, 무대에 오르는 이는 모두 4명이다. 글을 쓴 김성범·김참들과 그림작가 문종훈, 작곡가 이소연이 함께 무대에 서기 때문이다.

특히 김참들 작가는 김성범 작가의 딸로 ‘왜? 딸과 함께 공저자가 됐을까’ 재미있는 뒷이야기를 비롯해 이번 작품과 관련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책은 자존감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자신의 뿐을 부끄러워하는 도깨비가 주인공으로 나온다. 뿐을 숨기기 위해 토끼의 머리띠를 써보기도, 여우의 그림자를 보고 자신과 닮았다고 우려보기도 하지만 숨 속 친구들은 도깨비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따돌림을 한다.

도깨비는 더욱 움츠러들어 도깨비 뿐을 이파리로 숨기고 다닌다. 그러나 뿐을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다니는 소를 만나면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나기에 이른다.

김 촌장은 “어린이든 어른이든 숨기고 싶은 모습이나 사연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럴 때 어떻게 해쳐 나가야 할지, 북콘서트에 참여해 함



께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이번 행사 배경을 전했다.

언급한대로 북콘서트에는 작가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작곡가와 함께 노래도 하고 그림작가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관객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어 공감과 공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행사는 오프닝 공연으로 ‘미희와 산적’이 펼쳐진다. 이어 김참들 작가의 그림책 낭독, 이소연 작곡가가 ‘뭐 어때 노래해요’를 들려준다. 이 작곡가는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었는지 이야기한다.

문종훈 그림작가의 그림에 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캐릭터, 인상에 남은 그림, 에피소드 등을 중심으로 관객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한편 유명 요들라이기도 한 김 촌장은 “제가 작곡한 동요가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동요가 실려있는데 이번 북콘서트에서 선보이면 흥미로운 북콘서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깨비마을은 조각공원과 산책로, 전시관이 갖춰져 있으므로 일찍 나서서 이쁜 봄나들이를 겸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설박·이성경 작가…4월 5일까지 함평군립미술관

### 젊은 두 작가의 ‘확장의 순간’ 전

수록으로 풀어낸 자연은 단조롭지만 깊이를 발한다. 먹의 물성과 번짐이 만들어낸 우연성을 담아내는 작가의 시각은 무한대로 열려 있다. 심미적인 시각은 육안이 지나는 제한을 넘어 자유롭게 유연하다.

설박 작가의 ‘자연의 형태’는 공간의 개념을 자유자재로 구현한 느낌을 받는다. 자연에 대한 작가의 해석을 보는 이는 또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하게 되



이성경 작 ‘땅의 향’



설박 작 ‘자연의 형태’

는 것이다.

함평군립미술관(관장 이태우)에서 열리고 있는 ‘확장의 순간’ 전(오는 4월 5일까지).

이번 전시는 설박 작가 외에도 이성경 작가의 작품도 볼 수 있다. 두 젊은 작가의 개성적인 조형언어는 지금까지의 창작의 궤적을 토대로 다음의 단계를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다. 두 작가는 각각의 방식으로 동시대 감각과 문제의식을 작업에 담아내며 개성적인 조형언어를 넓혀가고 있다.

언급한 대로 설 작가의 ‘자연의 형태’는 기존의 수목산수와는 결이 다르다. 익숙한 자연에 대한 문법에서 한 발 비껴서 자연을 외부의 시선이 아닌 내부의 시선으로 포착한다. 물리적인 경계는 무화되고 그 자리에 독특한 조형 언어의 무늬가 남는다. 작가가 바라보는 자연의 형태가 변주되리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이성경 작가의 작업 키워드는 ‘그림자’와 ‘경계’다. 반복적인 양상의 제작 과정은 작가의 인식이 기억과 시간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겹겹이 배경한 장지에 목탄, 물감, 아교 고정을 덧입히는 방식은 창작 과정의 시간과 맞물린다.

수채화 같은 분위기를 빌리는 ‘땅의 향’은 그만큼 세련된 감각과 감성이 응축돼 있다. 하늘을 창으로 아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땅을 창으로 세상을 응시하는 시선은 사고의 전복과 막힘 없는 시공간의 확장을 전제한다.

이태우 관장은 “두 젊은 작가는 기존의 작업을 토대로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며 “관객들은 동시대의 감각, 감성 외에도 작가들이 상정하고 있는 독자적인 예술에 대한 지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19~20세 청년에 문화예술 관람비 지원

25일부터 최대 20만원

국내에 거주하는 19~20세 청년에게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19~20세 청년 28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6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지난 2024년부터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력 예매처인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 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19세가 된 2007년생은 물론 지난해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2006

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즉시 수도권 거주 청년에게는 15만원, 비수도권 거주 청년에게는 20만원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예매처를 사전에 한 곳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올해부터는 7개 예매처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화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도권은 2회, 비수도권은 4회로 이용 횟수가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다만 7월 31일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문제부는 더 많은 청년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미사용 지원금을 환수해 하반기에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작품은 소심한 도둑 안젤로가 한 시의원의 집에 침입하면서 시작된다. 도둑의 아내, 시의원과 그의 아내, 내연녀 등 여러 인물이 얹히며 오해와 속임수가 이어지고, 영동한 해프닝과 기상천외한 상황이 꼬리를 물며 펼쳐진다.

/연합뉴스

## 전남대 극문화연구회, 13~14일 궁동 미로극장

### ‘도덕적 도둑’이 전하는 도덕적 메시지

“어둠 속에서 가장 선명해지는 건 양심이었습니다.”

전남대 극문화연구회(전대극회)가 오는 13~14일 오후 2·6시 광주 동구 궁동 미로극장 2관에서 126회 정기공연으로 ‘도덕적 도둑’을 선보인다.

1997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다리오 포가 쓴 ‘도덕적 도둑’은 권력층의 위선과 도덕적 혼란을 유머와 풍자로 그린 혼극이다.

작품은 소심한 도둑 안젤로가 한 시의원의 집에 침입하면서 시작된다. 도둑의 아내, 시의원과 그의 아내, 내연녀 등 여러 인물이 얹히며 오해와 속임수가 이어지고, 영동한 해프닝과 기상천외한 상황이 꼬리를 물며 펼쳐진다.

극은 과장된 동작과 발상을 활용한 슬랩스틱 코미디를 바탕으로 인간의 본능과 도덕의 경계를 유쾌하게 보여준다. 도둑과 등장인물들의 거짓말과 오해가 풀리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는 결말은 웃음과 함께 도덕적 메시지를 전한다. 1958년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지만 협오와 분열, 가치관 혼란이 반복되는 현대 사회에도 깊은 울림을 남긴다.

연출을 맡은 민선우는 “각종 매체에서 옮겨 그림을 나누며 협오가 판치는 세상이다. 이번 작품에서 ‘도둑’을 통해 드러나는 상류층의 권력과 위선은 ‘진짜 도둑’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며 “심오한 주제지만 웃음과 함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이 편하게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공연 정보와 예매 방법은 전대극회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람료 5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